

여야,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방 격화

민주 “민생에 백해무익하고 안보 재앙...당선인 법적 권한 없어” 성토 국힘 “‘광화문 대통령’ 약속 이데라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야” 방어

정치권은 21일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두고 거센 공방을 주고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안보 공백 등에 대한 우려 제기과 함께 당선인이 집무실을 이전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반발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발목잡기라며 반격했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전 대통령실의 이전은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 것은 물론 이전 비용으로 쓰일 예비비 집행 요구 역시 ‘월권’이라며 절차적 허자를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당선인은 취임 전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을 결정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대통령직 인수법 어디에도 당선인에게 국가 기관의 이전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당선인에게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 승인, 집행할 권한 또한 없다”며 “인수위는 당선인의 예우와 인수위 활동에 필요한 예산만을 행안부를 통해 기재부에 신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재정법상 윤 당선인이 이전 비용으로 활용키로 한 예비비는, 신청을 중앙부처의 장이 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현직 대통령이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밝힌 국방시설 이전 계획역

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국방시설사업법)에서 정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민석 의원은 “당선자가 취임 전에 군 통수권자의 승인이 필요한 국방부 이전 행위를 결정하고 사실상 공포하고 강행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5월 10일 취임 후 정당한 권한으로 적절한 안보 대비 조치를 해가면서 국민과 소통하며 정확한 예산을 계산하고 확보해 추진하는 것이라면 누가 반대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차제에 국회는 대통령집무실법을 제정해 현재의 법적 혼란을 근본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는 대통령실 이전을 강행한 윤 당선인에 대한 성토장으로 흘렀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러니 미국에서는 ‘한국 K트럼프가 나왔다’는 말이 떠돌고 강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거듭 말하지만 청와대의 용산 이전은 민생에 백해무익하고 국가안보에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조용선 비대위원은 “윤 당선인은 임기 시작 전 60일 중 벌써 열흘을 보냈는데 그간 몰두한 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인테리어, 이사 비용”이라며

“국민에게 보여드려야 할 것은 용산집무실이 아니라 2차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한 민주당 공세를 ‘발목잡기’로 규정하는 한편 이전 비용 과다·안보 공백 등의 여권발 난란을 과거 ‘광우병 사태’에 빗대는 등 총력 방어 태세에 돌입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을 상기시키며 현 정부의 원만한 협조를 촉구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권의 발목을 잡는 데 혈안이 될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못했던 ‘광화문 대통령’ 약속을 이데라도 지킬 수 있도록 협조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던 청와대에 문 대통령의 자녀가 거주하면서 ‘아빠 찬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공약 파기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 역시 없었다”며 “이전 비용이 1조 원 이상이 소요된다거나 헬기장을 미군이 통제한다는 등의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익을 해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직인수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은 이전 비용이 1조원이 넘는다고 한다”는 지적에 “500억원도 안 되는 이전 사업을 1조원이 든다고 하는데 광우병(시위가) 생각나기도 하고, (민주당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략기획위원장 조승래 의원·수석사무부총장 서삼석 의원

민주 비대위 당직 인선

더불어민주당 비대위는 21일 신임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재선 조승래 의원을 임명하고, 수석사무부총장 서삼석 의원과 조직부총장 민병덕 의원을

유임했고, 미래부총장으로 양이원영 의원을 새로 임명했다.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으로도 송기현 의원이 유임됐다.

대전 출신인 조 의원은 민주당 전략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는 선대위 수석대변인을 맡았다.

상임고문으로는 송영길 전 대표와 권노갑 전 고문 등을 위촉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호중·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에 대해 내달 1일 중앙위에서 인준을 받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또 전당대회가 예정된 8월까지 비대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꾸는 방안도 중앙위에 올리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민주 비대위, 원내대표 ‘콘클라베’ 선출 추진

후보 등록 절차 없이 선거전 시작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 선거전이 21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원내대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주 의결한 선거일(24일)과 진행 방식을 추진했다.

전날 3선 박홍근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을 제대로 살리는 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4선 안규백 의원은 21일 “옳다고 믿는 바를 강력하게 추진하되, 항상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면서 차기 원내대표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또 3선 김경협·박광온·이원욱 의원(가나다순)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중 이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하나 된

통합과 단결만이 강한 민주당을 만들 수 있다”는 글을 올리며, 간접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콘클라베’ 방식으로 진행하는 만큼 출마 예정인 의원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소속 의원이 다른 의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선거 운동은 금지키로 했다. 24일 진행되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교황 선출방식을 차용한 형태로 진행돼 공식 후보 등록 절차는 없다.

이 가운데 박홍근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측, 박광온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측 인사다. 이원욱 의원은 안 의원과 같은 정세균계이며 김경협 의원은 이해찬계 친문이다. 한편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저울질했던 이광재 의원은 불출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6·1 지방선거 라운지

김학실 전 광주시의원, 광산구청장 선거 출마 선언

김학실 전 광주시의원은 21일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산구를 호남을 대표하는 도시로 만들고 호남의 허브로 거듭나게 하는 마중물이 되겠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더 좋은 광산”을 실현하기 위한 비전으로 ▲광산구 숙원사업 제주진 ▲문화가 풍성한 광산 ▲열악한 광산구 교육환경 개선 ▲호남 메가시티 구축 ▲구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 등을 약속했다. 방송 아나운서 출신으로



‘김학실의 추억찾기’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김 전 의원은 시의원으로 당선된 뒤 지난 4년간 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며 스포츠미투 대책 마련과 메이커교육 활성화, 하남시립도서관 건립과 비아고등학교 전환 등 교육환경 개선에 힘써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박병규 광산구청장 예비후보 “광산을 뉴딜경제 특구로”

박병규 광산구청장 예비후보가 21일 광주 광산구청장 출마를 선언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의 탄생과 캐스퍼라는 대박상품을 통해 사회적 대화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됐다”면서 “이제는 시민들께서 먼저 제2의 광주형일 자리를 만들어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성화에 나서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산구를 뉴딜경제특구로 만들어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시민들께 일자리를 기



회와 선택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대한민국 제1호 상생형 일자리인 광주형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최초 제안자이자 설계자로서 ‘캐스퍼’의 아버지로 유명하다. 민선 6기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하고 문재인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지역일자리 특별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더 나은 광산”...김익주 광주시의원 광산구청장 출마

광주시의회 김익주의원은 21일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산의 아들 김익주는 구민의 염원인 광산 자치주권의 자존심을 되찾아 내일이 더 나은 광산의 대전환을 위해 구정장에 재도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광산을 구석구석 잘 아는 광산 사람이 광산구청장을 해야 광산의 희망과 미래가 있다



는 구민들의 염원이 이번 선거의 비바람이자 대세”라며 “광산구 예산 확보와 광주시의 굵고 산적한 현안문제 등을 해결해냄으로써 강한 추진력과 민원 해결 능력을 지닌 참 일꾼으로 시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은 유망

격자”라고 주장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회사 사정상 “정리” 합니다. 문의 010-3605-5000

신안동 상업부지, 땅
176평, 오피스텔 허가 득
매매 - 21억, 조정가

덕남동 임야, 최고 투자처
660㎡, 지분매매, 개발호재 다
매매 - 4400만원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33평, 사무실 전용, 전망좋은
급매 - 8천만원, 즉시 입주가

대인동 오피스텔부지, 땅
156평, 9층 허가 득
매매 - 18억 5천만원, 조정가